

청소년과 대학생, 온 국민의 필독서



아마 1998년 6월 16일, 오전이었을 것이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현대그룹의 아산(峨山)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트럭에 나눠 싣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아산은 2차에 걸쳐 소를 보낼 것인데 천 마리로 끝을 지우지 않고 구백구십아홉 마리나 일천한 마리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아귀를 맞추면 ‘끝’이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맘 때 남북관계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예정되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뒤였다. 1997년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절정으로 치달아 기근으로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보도가 나오던 때였다.

북한 땅인 강원도 통천이 고향이며, 그곳에 친인척을 둔 아산. 무엇보다 그는 세계의 정황을 읽고 느끼는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던가.

아산이 건강한 소를 몰고 북한으로 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금강산 가까운 통천이 고향인 그는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훔쳐 가출했고, 결국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키운 씨앗 하나가 ‘소 판 돈’이어서 그는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방송 화면을 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울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또렷하게 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 중 가장 으뜸은 물론 ‘사랑’이다. 그가 그날 그렇게 중절모를 쓰고 소를 몰고 떠나던 모습은, 소설가인 내겐 ‘사랑’의 전형(典型)이었으며, 사랑에 대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마디로 ‘정주영식 사랑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린 날부터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는 데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 어떤 목표를 정할 때, 그것이 처음엔 하나의 둥근 원일지라도 결국엔 파장이 전 지구적으로 퍼진다는 것이다. 그는 고향에 소 한 마리의 빚을 갚는 것이었지만, 경제적 난국에 휩싸인 북한을 돕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자랑인 명산(名山) 금강산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분단민족의 상호 긴장도 풀게 하려는 여러 가지 포석들을 두고 있었다. (뒤페이지에 계속)



이경자 작가는 〈이 땅에 태어나서〉가 “한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과 해답을 던져주고, 삶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게 하는 책”이라면서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온 국민의 필독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을 시작할 때 아산은 자기 혼자를 위해 하지 않았다. 자신과 가족을 넘어 이웃을, 이웃을 넘어 공동체를, 공동체를 넘어 민족을 생각했고 인류를 염두에 뒀다. 그는 어린 날, 돈을 벌어서 잘 살기를 바랐지만 그의 평생 행로를 보면 돈이 목표가 아니라 늘 돈을 만들어내는 ‘일’에 신명을 다 바쳤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돈이 목표였다면 중소기업을 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했다.

아산은 1989년 1월 북한으로 가 금강산 공동개발 의정서를 제시했다. 그때 고향 통천을 찾았는데 6.25로 마을의 집들이 다 변했지만, 어릴 때 있던 감나무 다섯 그루는 그대로였다. 수십 년 나이를 먹은, 감나무가 있는 집. 그는 고향을 떠나던 날 작은어머니께 와이셔츠 한 벌을 내주면서 말했다.

“깨끗하게 빨아서 저기 걸어둬요. 다음에 와서 입게.”

그가 다시 그 와이셔츠를 입었을까?

아산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터득했다. “인생이란 시련의 연속이며, 연속되는 시련과 싸우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는 운이 좋을 때 그 운을 받아 열심히 일을 성공시켰고, 운이 안 좋을 때 비판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 그의 공부는 성찰과 반성과 연구였다.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것은 계량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진 것이며, 모든 일의 성패가, 국가의 흥망이 결국은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나는 조선소를 지으면서 절절하게 느꼈다.”

아산은 세간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그는 그 별명이 의미하는 모멸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학식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문이 없다고 해서 생각도 머리도 지혜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이 가진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학교에서 배운 학식과 부피나 깊이로만 내린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라면서 이런 말들을 덧붙였다.

“사람이 지식으로 올바른 앞에 이르면, 사물에 직접 부딪혀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배워야 한다.”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순간순간의 적응력이 우둔해질 수밖에 없다. 교과서적인 사고방식이 곧 고정관념이며 그것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함정이다.”

“나는 내 불도저에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라는 것을 달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면서 밀어붙였다.”

성실과 신용을 좌우명으로 삼아 일하는 보람 하나로 평생을 살았으며, 그것이 재미있어 일에 파묻혔던 아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 안전선 안에 있다고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니다.”

아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통찰이다. 글 이경자 소설가

※ 이경자: 1948년 강원도 양양 출생. <건너편 섬> <세 번째 집> <순이> <빨래터> <절반의 실패> 등 출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역임. 현재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가톨릭문학상, 불교문학상, 올해의여성상, 고정희상 등 수상.

